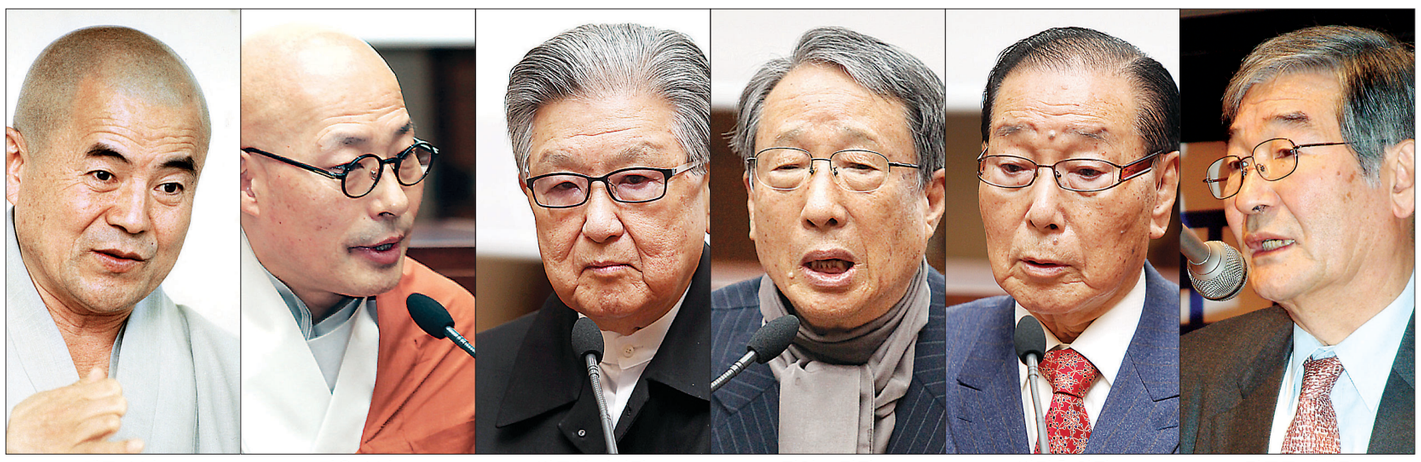
응송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 학술 세미나
인연있는 명사들의 축사에 박수 쏟아져

응송 스님 아니면 일지암 복원 불가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응송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과 몽성선원장 진우 스님,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정양모 백범기념관 관장,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축사를 맡아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의 모습을 전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혜국 스님 | 진우 스님 | 박동선 이사장 | 정양모 관장 | 박권흠 회장 | 김종규 이사장

"동춘차에서 응송 스님 인품 느껴"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응송 스님께서 전수하신 차를 마셔보면 응송 스님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하얗게 쌓인 깊은 산사에서 초의 스님으로부터 내려와 응송 스님을 거쳐 박동춘 선생에게 이어지는 동춘차, 즉 '열탕'을 마시노라면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차와 차를 우려내는 팽주와 그 차를 마시는 사람,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선문에서는 '선다일미'(禪茶一味)라고 하고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고 합니다.

응송 스님과 박동춘 소장이 차 마시는 모습을 그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떠온 물로 차를 다려 서로 반쯤을 마시니
몸과 마음 상쾌하여 하늘에 오를 듯
나는 백을, 저는 흑을 잡고 바둑을 두는데
흑 이기거나 지더라도 조용히 웃음을 지을 뿐

"초의 다맥, 응송과 박동춘 소장에게"

몽성선원장 진우 스님

은사이신 백운 스님께서는 조계종 스님으로서는 유일하게 응송 스님을 법사로 모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 또한 응송 노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인 1989년 완도 신흥사에서 시봉을 하였습니다.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노스님을 모셨지만 당신께서 살아온 그 내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맥에 관한 것으로서 응송 스님이 초의다맥의 적통이란 점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응송 스님은 차의 전반적은 부분은 박동춘 소장이 전승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인 스님으로서의 법맥은 백운 스님으로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송 스님 업고 일지암터 찾아"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1979년으로 기억합니다. 차인들이 한데 모여 차문화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선결과제는 초의선사가 기거한 일지암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졌는데 도대체 일지암이 있던 곳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인들이 응송 스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처음 응송 스님을 만났을 때 이 분이 아니면 한국 차의 역사가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고마움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응송 스님이 몸이 불편하셨는데 스님을 업고 일지암 자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스님이 안계셨으면 일지암 장소도 몰랐을 것이고, 일지암 복원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차 받는 이 생각하는 것이 '다법'"

정양모 백범기념관 관장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차가 성행해 전국에 차생산이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차회가 생겨났지요, 그런데 격식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송 스님을 모셨습니다. 1981년과 1982년 스님께서는 두차례 강연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격식과 예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에 매달려서는 차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큰방에 노스님이 앉아계시면 그 스님이 오른손을 쓰시는지, 왼손을 쓰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왼손을 쓰는 스님에게 오른쪽에 차를 놓아선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 차를 받는 이가 받는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리 차를 앞에 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도는 인성교육, 동다송 교재로"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일지암은 한국 차문화의 성지가 됐고, 일지암에 한번 가보지 않고는 차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2년 한국차인연합회장으로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한국다도대학원을 만든 일입니다. 현재 22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공부가 '동다송'이며, 첫 답사가 일지암 답사입니다.

우리는 인성교육이 다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됨을 알고 있습니다. 다도가 희망입니다.

"다도로 옛 선조 발자취 되새겨"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초의 스님이 주석하신 일지암은 추사와 소치, 다산과의 교류가 함께 남아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여야와 지역을 초월한 화합의 모습을 초의 스님은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적인 발전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스마트폰에 오염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도를 통해 이런 오염된 정신을 맑게 하고 옛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교육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도와 학문이 만난 추모의 장

'응송 박영희의 삶과 차' 세미나 현장

이날 세미나 현장은 다도와 학문이 한데 어우러진 자리로 펼쳐졌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전통 차문화 연구서의 선구가 된 응송 스님의 '동다정통고'를 보시했으며, 동춘차를 시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세미나 쉬는 시간마다 대중들이 다도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미나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응송 박영희 스님의 독립운동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교수는 "응송 박영희 스님이 일생동안 보여준 헌신과 가치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불교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립유공자로 이름을 올린 후 친일인사로 폄하당한 스님들 중 유일하게 응송 스님만이 후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고 있다. 스님과 연고가 있는 조계종과 태고종, 동국대, 대흥사 등에서 선양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는 응송 스님의 불교청년운동과 승려로서의 활동 및 차문화 중흥 등의 활동을 조명했으며 김미선 청주대 한문교육과 교수는 응송 스님의 '수연설법(隨緣說法)의 제법문'을 기초자료로 시문학 세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응송 스님 다법의 연원 및 특징을 살피고 초의, 범해, 원응 스님으로 이어져온 대흥사의 다법을 이은 것임과 고온에서 찻잎을 덖는 덖음차가 초의다법임을 밝혔다. **〈발표요지는 본지 1072호 9면에 보도〉**

세미나 휴식시간에 참석자들이 다도를 체험하기 위해 줄서 있다.

[특별기고] 내가 본 응송 박영희

김대성 前한국일보 편집위원

장삼에 가사를 걸친 초의스님의 모습을 갖가지 자연색으로 그린 '진영'과 〈동다송〉 필사본, 〈만보전서〉에서 옮겨적은 〈다신전〉 필사본은 용인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세월이 지날 수록 차인들에게 아낌을 더하고 있는 이 세가지 작품이 없었다면 우리의 수천년 차문화 역사에서 내세울 근거는 초라했을 것이다.

응송 스님이 차계 발전을 위해 끼친 영향은 이들 다서를 지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제 압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킨 이들 고전은 1937년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 후인 1955년까지 20년간 응송 스님이 지켰다. 대흥사 주지로 지내며 일본인들의 횡포를 무릅쓰고 항아리에 넣어 대청마루 밑에 파묻어 보존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차문화 전적을 찾아 혈안이 됐을때 스님은 초의스님의 차이야기가 기록된 전적을 지켜낸 것이다. 빈약한 문화를 차로 꽃피운 일본인들이 응송 스님에게 회유 반 협박 반으로 맴돌았지만 스님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선에는 막걸리만 있지 차는 없다'는 일본인들의 막말과 광복 후 왜색다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때 떳떳하게 한국 차문화사를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어 1980년대 차문화가 수면위로 뜨면서 전통기법이라는 단서로 무장했지만 흉내만 냈던 시절, 응송 박영희 스님의 차는 획기적이었다.

뜨거운 차를 후후 불어 한모금 두모금 조심스레 마시면 향기로움이 혀뿐만 아니라 목젖 뒤로도 올라왔다.

스님이 평생을 마셨던 차, 그 마지막 한모금의 맛은 어땟을까. 내생에서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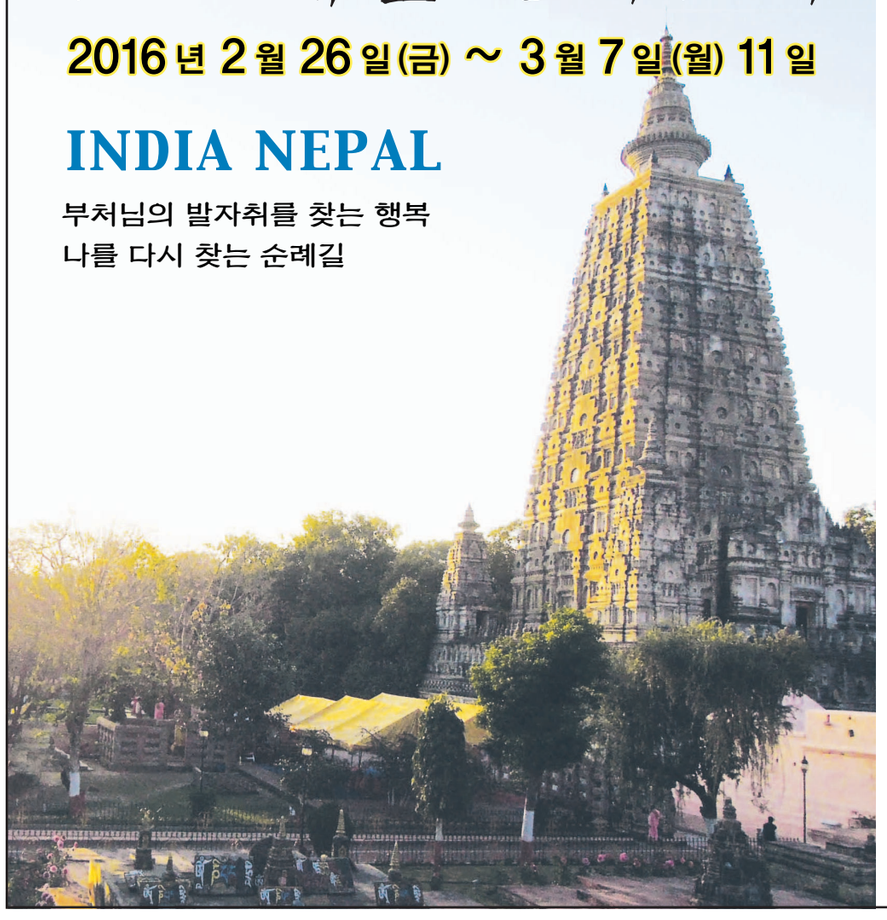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INDIA NEPAL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는 행복
나를 다시 찾는 순례길



순례지도법사 – 법현스님

• 활동사항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BTN 즉문즉설 출연 방송중
◇저서 〈추워도 향기를 팔지않는 매화처럼〉 외 다수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순례지도법사 – 효진스님

• 활동사항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행복도량 광덕사 주시
◇마음치유 MOST 행복센터 평생교육원

인도 · 네팔 성지순례 특별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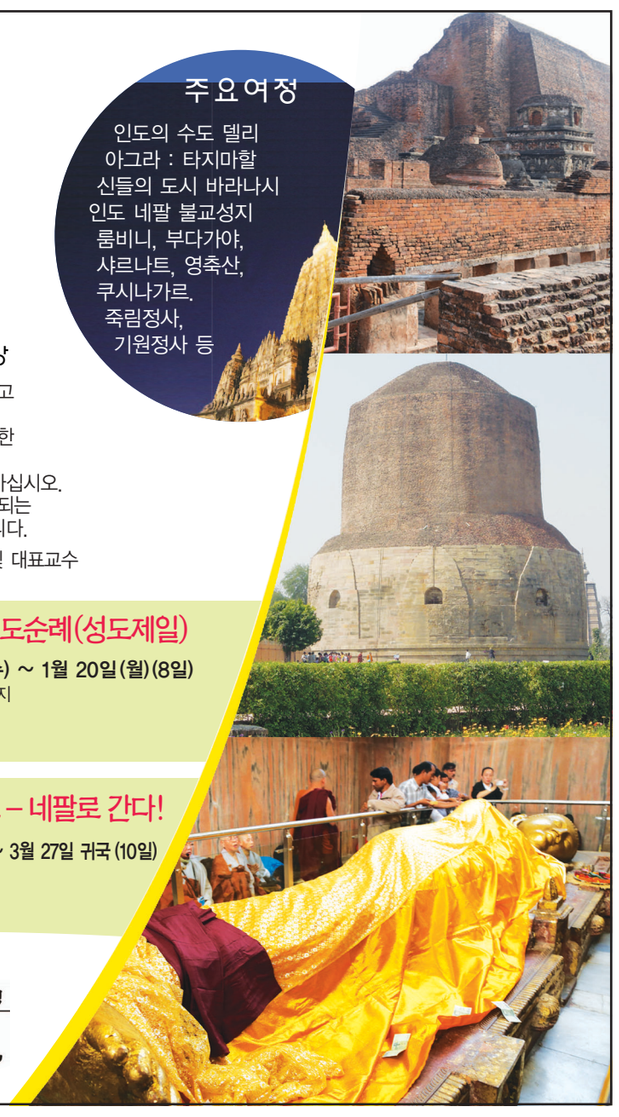
힐링 명상 음악가 김태곤 가수, 보건학 박사

오감만족에만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청정함과 참 자아 찾기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자연진동에 저절로 흔들이는 참 생명력
• 히트곡 : 망부석, 송학사 등
'심신건강증진 음악으로 긍정에너지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동행> 마음 치유 명상 힐러 김기호 원장

당신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인생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한해가 흘렀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다른 청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 아름다운 삶 교육원 원장 및 대표교수

주요여정
인도의 수도 델리
아그라 : 타지마할
신들의 도시 바라나시
인도 네팔 불교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샤르나트, 영축산,
쿠시나가르,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 (금) 까지
■ 동 참 금 : 275만원
■ 신 청 금 : 50만원
■ 1차 접수 : 265만원 (12월 30일까지)
2차 접수 : 275만원 (2월 5일까지)
■ 여권사본과 신청금을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사본 보내는 방법◁
팩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 fung101
■ 문의접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불타 여행사
TEL : 02) 733-9317 / FAX : 02) 732-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드가야 대각 성도지 기도순례(성도제일)
■ 출발날짜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0일(월)(8일)
■ 접수마감 : 2015년 12월 24일 까지
■ 지도법사 : 향림사 주지 경진스님
■ 순례비용 : 235만원

나는 붓다를 느끼려 인도 – 네팔로 간다!
■ 출발날짜 : 2016년 3월 18일(금) ~ 3월 27일 귀국 (10일)
■ 순례비용 : 239만원
■ 부처님 성지 – 아그라 – 델리

불타 BUDDHA BOHEMIAN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